기 고

질풍노도(疾風怒濤) 미용인생에서의 '참 신앙생활'

박 장 순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사전적으로 매우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커다란 물결을 의미하는 '질풍노도(疾風怒濤)'는 비단 사춘기 시절의 불안정한 심리와 정서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미용인의 기나긴 미용 인생과 견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미용인을 포함한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안하무인(眼下無人) 혹은 독불장군(獨不將軍)처럼 군림하려는 인간들도 주위에 간혹 존재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유약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즉 인간은 나태해지면서 자신을 돌보거나 챙기지 않는 순간 곧장 유혹의 나락으로 빠지는 연약한 존재이다. 마약, 알콜, 섹스, 게임, 주식과 같이 특정 분야에 쉽게 몰입하고 중독되는 사람이 타인과 견줘 유달리 부족하거나 미련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나약하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나약한 의지와 내면세계를 지탱해 주고 강하게 붙잡아 주게 하는 존재가 신앙생활 즉 종교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악(惡)을 멀리하고 선(善)을 따르면서 천국이나 열반의 세계에 가고자 하는 지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천주교(Catholic), 개신교(Protestant), 불교(佛敎), 무속(巫俗)신앙, 이슬람교(Islam)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와 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다양하다.

미용업에 갓 입문해 기술을 익히는 수련 단계부터 프로 미용인의 반열에 올라선 이후에도 미용 인생이 마냥 꽃길을 걷는다거나 탄탄대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굴곡 많은 질풍노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고객 응대에서 발생하는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 직원 간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트러블, 변화무쌍한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직무 심리 추이에 따라 미용인의 의지나 마음가짐은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나약해진다. 이때 구세주와 같이 미용인의 흔들리는 나약한 정신세계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존재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미용인이 신앙생활을 지속적 영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가령 헤어살롱이나 웨딩숍은 평일보다 주말에 많게는 2배 안팎으로 매출이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매주 정기적으로 미사나 예배에 참례하려면 개인적 업무시간의 조절이 불가피하게 된다. 천주교 신자인 필자는 현업에 종사할 적에 주일미사참례를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새벽 4시30분에 시계 알람을 맞추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다. 만약 신심의 피로와 현실적 안주를 핑계로 '안락의 늪' 속에서 미사참례를 빠졌다면 필자 역시 냉담자가 되지 말라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미용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충, 정신적 스트레스, 직업상 매너리즘(mannerism)과 같은 직무 심리상 부정적 위해요인은 차분하고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미용인의 내면을 정화 시키고 마음의 근육을 튼실히 만듦으로써 장수하는 미용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몇 달 전 필자의 뇌리에 신선한 충격을 준 신경학자 빅토르 에밀 프랑클(Viktor Emil Frankl)의 '로고테라피(logotherapy)'는 실존분석에 근거하여 인간의 삶 속의 '의미(뜻)'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속한 성당의 주임 신부님께서는 번잡한 인간 일상에서 정리와 정화를 위해 '멈춤(stop)'을 강조하신다. 멈춤 속에서 자아 성찰과 일상의 번뇌, 갈등, 문제해결 등을 위한 신선한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다.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칼 폴 라인홀드 니부어(Karl Paul Reinhold Niebuhr)는 '평온을 비는 기도(Serenity Prayer)'에서 "신이시여! 바라옵건데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 했다. 이 기도문처럼 내적으로 냉정과 평온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지니면서 본인만의 특화된 미용 기술을 창출해 나간다면 역량 있고 성공한 미용인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라 갈파한다.

기 고

다시, 누가 주인인가?

어 성 준
무안읍 주민자치위원장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 간 갈등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필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최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만나보면 많은 이들이 관리와 관련된 갈등을 호소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이 권한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점차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규정한 권한만 제대로 활용해도 많은 민원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소극적 대응 방식은 주민과 담당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점점 확대된다. 결국 주민들은 갈등 속에 내몰리고, 담당자들은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린다. 작은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행정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갈등 사례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정 체계는 주민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행정이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실효성 강화

동대표와 관리소장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원활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임 동대표 교육만이라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동대표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 회계감사 실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은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주민이 돼야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 자신이다. 모든 문제를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공동체는 더 강하고 자부심 넘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제도를 악용하던 이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묻는다, 누가 주인인가?

취재수첩

무신불립(無信不立)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무신불립(無信不立). 요즘 회자되는 말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사자성어이다.

최근 목포시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용궁배수지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결국 중단 결정했다.

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초 용궁배수지 4만4천272㎡ 중 9천133㎡(20%)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인근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제시되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5월 공고, 6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8월초 가협약까지 마쳤으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코앞에 두고 사업추진 5개여월만에 설명회를 하는 등 밀실 행정에 강력 반발하며 결사반대 집회시위에 나섰다. 시는 매년 임대료 3천7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해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투입하려 했다고 내내 아쉬워하지만 행정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목포시가 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공고 취소를 공고했는데 시의회가 위법한 절차를 즉시 취소하고 향후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한 후 나온 결정이어서 이 또한 뒷말을 낳고 있다.

앞서 말한 무신불립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신뢰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야 나머지도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법이다. 금전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신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다.

목포시가 시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시민이 목포시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투명한 행정, 소통, 공감, 신뢰, 신중과 배려, 균형감 등을 마음에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들의 인심을 얻는 것은 작은 정성에서 시작된다.

주민을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배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낮춰서 높아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모든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부끄러움은 시민 몫인가? 시민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자. 상하언제(尙何言哉),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자치구 첫 북구사랑상품권 추진 주민 동의가 관건

광주시 북구가 최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 상품권은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선불식 형태가 유력하다. 북구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4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생활 안정 지원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됐다. 저소득 주민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위해 구비 40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지원금이 광주 전역에서 통용되는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이뤄져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난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권 도입의 취지는 십분 타당하다고 본다.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실제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거나 사용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발행, 운영되며 이 때 발생하는 혜택성 차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행 기관에서 맡고 있다. 북구가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된다. 일단 북구는 논의의 진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칫 포퓰리즘,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선인 문인 구청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상품권 유통이 지역 소비 촉진, 침체된 경제의 활력에 부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 유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대개는 여의치 않다. 북구는 입법예고와 함께 조례안 제출 등으로 지역의 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남 의대 설립 첫걸음 목포·순천대 통합 합의 환영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투트랙으로 전남도가 진행돼온 추천 대학 공모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동·서부권 갈등도 지연스럽게 사라질 전망이다.

양 대학은 대학 통합 과정과 의대 설치·운영 등 모든 면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타협에 성공했다. 2026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낼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평가도 이달 말까지 신청한다. 양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기한 안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찬반 표결 등 요건을 충족 못 한 대학이 있을 경우 부합한 곳에서 정원을 우선해 받는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서둘러 정부에 통합의대 방안을 설립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전남도와 교육부의 기대에 맞춰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김영록 지사는 '역사적이고 대승적'이라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두 대학은 '글로컬 30'에 선정된 바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초일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의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적잖은 시간을 낭비했다. 소모적인 지역주의 대결이라는 폐해도 낳았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결단했으니, 속도가 붙어야 한다.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데도 차질이 없길 바란다. 다행히 과거의 통폐합, 흡수 통합이 아니라 최대한 현재 기능과 캠퍼스를 유지하는 '느슨한 형태'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드디어 전환점을 맞았다. 향후 절차, 구체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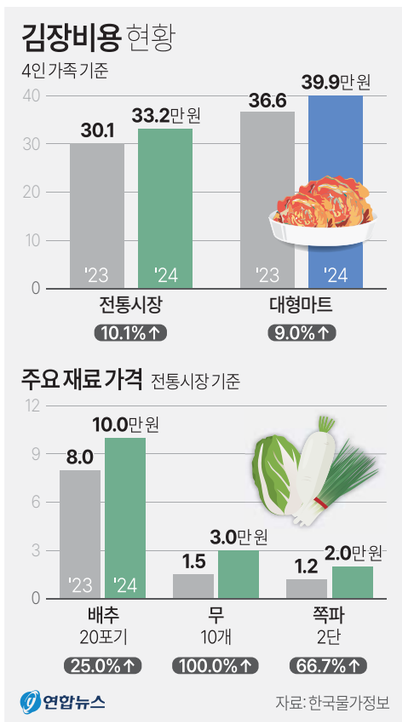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폭염에 김장비용 작년보다 10% ↑ …"가격 계속 안정"

올해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한 비용이 작년 김장철보다 더 들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18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은 33만1천500원으로 작년보다 10.13% 늘었다.

물가정보가 조사한 기준(할인 지원 등 제외)으로 배춧(20포기)값은 작년 8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25% 오르고 무(10개) 가격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쪽파(2단)도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66.67%, 총각무(3단)는 1만2천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12.50% 각각 비싸졌다. 작년 김장철과 비교해 김장 주재료 중에서 대파를 제외한 품목들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 반면 양념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와 소금 등 부재료는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김장재료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용은 39만9천430원으로 작년 36만6천360원보다 9.03% 늘었다. 배춧값은 20.88%, 무는 106.15% 각각 비싸졌다. 김장 부재료 등의 김장 재료는 작황이 좋은 데다 정부 비축 물량까지 공급돼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